

“너희, 잘하고 있어?”

-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를 읽고

장경희 회원, 치유와연대의공동체 두리공감 상임활동가

10여 년 노동자와 함께하는 치유 사업을 해 오면서 수없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자책을 되풀이해 왔다.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자신이 없었고 자존감은 바닥에 나뒹굴기 일쑤였다. 나의 운동, 나의 삶을 흔드는 날들을 보내다 최근에는 원초적 게으름으로 회귀하며 더 이상 반성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회복해 가던 찰나, 이 책의 서평을 요청받았다. 책을 읽는 내내 “너희, 잘하고 있어?”라고 묻는 것 같았고, 다시 반성문을 써야 할 것 같은 강박이 느껴진다.

사람을 부서지게 만드는 자리….

한 사례 한 사례들은 낫설지 않다. 낫설지 않아 더 아프고 눈물이 난다. 내가 알고 지내던 그와 그녀들의 얼굴이 겹치고 동료로 잃은, 살아남은 자들의 멍한 눈빛이 생생히 그려진다. 3층에 있는 우리 상담실을 다섯 번 여섯 번을 쉬어가며 올라오던 무겁고 흔들리던 발걸음, 백혈병을 진단받고 퇴사를 강요받은 이의 괴롭고 외로운 표정, 그루밍에 가까운 심리적 지배로 노예처럼 부러지다 버려진 이의 통곡. 그 고통들이 “괴롭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이 이름만으로는 현실을 품지도, 고통의 개별성을 담아내지도, 근원적인 책임과 구조를 설명하지도 못한다. 이 책은 부서진 자리가 어디인가를 물으며, 각 사례자가 겪어야 했던 모멸의 순간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근원을 파고든다.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갈 때마다 늘 두 개의 시선과 마주친다.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심리적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원래 노동자들이 기회만 생기면 일하기 싫어서 힘들다고 하지’, ‘그 정도 멘탈로 무슨 사회생활을 한다고…’ 부류의 시선이 있다. ‘처음에 피해를 호소했을 때만이라도 분리 조치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위협하다고 말했는데 쉬쉬해 놓고’라는 부류의 반응도 있다. 전자는 “부서진 또는 부서질 만한 사람”을 본 것이라면, 후자는 “사람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를 본다.

일터의 폭력, 사라진 목소리가 남긴 마지막 흔적



▲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 그들은 왜 퇴근하지 못했나 | 유상철 지음 | 나눔박스 | 272쪽

이 두 개의 시선은 상황에 관한 판단, 일터에서 관계를 세우는 정의와 원칙, 개선과 실천의 태도 모두에서 같린다. 이 책은 사람이 부서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리의 이야기다. 위계를 포함한 일터에서의 관계가 왜곡되고, 피해자의 말이 사라지고, 침묵과 침묵의 강요가 공기처럼 흐르고, 권력이 일상이 될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일터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서서히 침식하는 공간이 된다고 말한다.

침묵을 뛰어넘어 말이 안전해지는 구조를

우리가 사는 일의 세계에서 '부서진 자리'는 예외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미 일상이 된 토대와도 같다. 개별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조건에 가깝다. 누군가 특별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보편화된 위태로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방어하고 버티고 그러면서 아프다.

반면 이러한 일반성과 보편성만을 강조하면 우리의 실천과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질서의 문제이니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실천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힘들고 큰 싸움이어서 할 수 없다거나 ‘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냉소나 무더짐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드러내고 추적해 가며 우리가, 우리의 실천이, 나아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괴롭힘이 작동하는 핵심인 침묵을 뛰어넘어 말이 안전해지는 구조, 누가 잘못했는가 아니라 이 구조는 왜 그렇게 작동했는가를 질문하는 과정, 성과나 효율 이전에 존엄이 기본값이어야 하는 이유, 고립을 만들지 않는 동료성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례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개별 사례의 “그 순간”을 포착해 일상의 실천을 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질문한다. 부서진 자리를 더 내려앉게 하는가, 아니면, 부서진 자리에 연고 몇 개와 붕대 조금 가져와 꿰찰아질 거라 기도하는가, 그것도 아니면 절망과 슬픔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는가... 아니면, 부서지지 않는 자리를 상상하고 아주 작은 길이라도 가 보고 실험하고 넘어지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나의 10여 년이 넘는 치유활동의 전망과도 연결된 질문이다. 하필 왜 이 시점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나에게 묻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이 죽어야만 움직여지던 알량한 양심의 심판대 위를 어슬렁거리던 나를 마주하게 한다. 